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김 경 혜¹⁾ · 김 경 덕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대상자 특성으로 인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의사결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비판적 사고는 삶의 모든 분야에 요구되며 간호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개혁운동에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국제간호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서 요구하는 간호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서 교육성과의 핵심을 이루며, 전문 간호사를 위한 준비로 간호사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신경림, 1996). 간호사들이 매 순간 경험하는 간호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한다면 개별적 간호가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통찰력이나 직관력 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건강관리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은 자신의 사고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학습 환경 및 교수법과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여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나 훈련을 통하여 함양될 수 있다(Brahler, Quitadamo, & Johnson, 2002).

최근 선진국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McPeck(1981)은 비판적 사고는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목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판

적 사고는 인간으로서 존엄성 확보와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은 물론 교육 발전을 위한 일련의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란 평가와 판단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기술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Profetto-McGrath, 2003).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평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Shin, Jung, Shin, & Kim, 2006).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 인간이 될 수 있으며 주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정할만큼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하고 있다. 간호교육은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자기효능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Belief)으로, 개인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 및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정도에 따라 바람직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며, 어떤 일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으

주요어 : 비판적 사고, 자기효능감

1) 김천과학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kkh7791@hanmail.net)

2) 대구보건대학 조교수

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업성취도도 높다(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황성자, 2006;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민소영, 정승교, 2006; 신성례, 2006). 또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낮은 대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낮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대인관계도 긍정적이었다(한금선, 2005; 2006;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 2006).

Bandura(1977)에 의해 개발된 자기효능이론은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구성해 나간다고 보고 있다. 자기효능이론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효능(Self-efficacy)이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효능은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원, 즉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및 정서적 각성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대한 결심과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심하게 하고 질병과 치료에 대한 대처나 적응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간호학을 비롯하여 여러 학문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호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역할 요구와 더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대인관계, 과중한 업무, 무력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실습 자체가 높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증진 가능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한다면 교육의 핵심이 되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함양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호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연구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문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용어 정의

- 비판적 사고성향 :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 하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및 습관을 의미하며(신경림, 하주영 및 김건희, 2005), 본 연구에서는 박선환(1999)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기효능감 : 자신이 바람직한 기대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M시의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하여 모든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D시와 M시 소재 2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충실하게 작성된 186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비판적 사고성향 : 박선환(1999)이 개발하고 고금자(2003)가 사용한 도구로서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인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7문항), 지적 정직(6문항), 신중성(4문항), 객관성(3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 항목인 3, 7, 9, 13, 17, 19, 20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3$ 이었으며, 고금자(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4$ 이었다.

- 자기효능감 :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서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인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6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인 항목인 1, 3, 5, 6, 9, 10, 11, 13, 16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강소영(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5$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가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것은 문항별 신뢰도에서 3 문항(6, 9, 18)이 특히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WIN/PC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22명(11.8%). 여자가 164명(88.2%)으로 총 186명이었고, 연령은 대학교 1학년생으로 20세 미만이 137명(73.7%), 20-21세가 24명(12.9%), 22세 이상이 25명(13.4%)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20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순이었다. 졸업고교의 계열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이 166명(89.2%)로 가장 많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이 18명(9.7%), 기타가 2명(1.1%) 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는 '취업고려'가 103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타인의 권유'가 32명(17.2%), '적성고려'가 24명(12.9%), '성적고려'가 12명(6.4%), 기타가 15명(8.1%)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22(11.8)
	Female	164(88.2)
Age	> 20	137(73.7)
	20-21	24(12.9)
	22 ≤	25(13.4)
Religion	Protestant	21(11.3)
	Catholic	9(4.8)
	Buddhism	36(19.4)
	None	120(64.5)
High school	Academic	166(89.2)
	Vocational	18(9.7)
	Other	2(1.1)
Motivation of nursing	Job/Advance into abroad	103(55.4)
	Aptitude/Interest grade/score	24(12.9)
	Advice of parents or others	12(6.4)
	other	32(17.2)
		15(8.1)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최저 44점, 최고 84점으로 평균 62.59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평균은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21.33점, 지적 정직 19.89점, 신중성 12.13점, 객관성 9.24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assification	Min	Max	Mean	S.D.
Intellectual compassion/sound skepticism	12	29	21.33	3.18
Intellectual honesty	14	28	19.89	2.09
Prudence	6	17	12.13	1.78
Objectivity	3	15	9.24	2.03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total	44	84	62.59	5.67

자기효능감 정도

자기효능감 정도는 최저 64점, 최고 112점으로 평균 88.91점이었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을 알아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이 평균 45.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이 평균 24.71점, 과제난이도 선호가 평균 18.4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Mean scores of self efficacy

Classification	Min	Max	Mean	S.D.
Self-confidence	7.00	39.00	24.71	5.46
Self-regulatory efficacy	24.00	62.00	45.70	5.71
Task difficulty preference	12.00	26.00	18.43	2.07
Self-efficacy total	64.00	112.00	88.91	7.33

<Table 4> Mean scor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63.05	5.12	.400	.690
	Female	62.53	5.73		
Age	>20	62.56	5.22	.856	.427
	20-21	63.75	5.91		
	22≤	61.63	7.53		
Religion	Protestant	62.86	4.60	.082	.970
	Catholic	61.89	8.57		
	Buddhism	62.66	5.58		
	None	62.59	5.66		
High school	Academic	63.00	5.50	4.591	.013
	Vocational	58.76	6.12		
	Other	61.00	2.83		
Motivation of nursing	Job/Advance into abroad	62.57	5.58	.435	.783
	Aptitude/Interest	61.63	4.41		
	grade/score	64.25	5.75		
	Advice of parents or others	62.79	3.72		
	other	62.79	10.41		

<Table 5> Mean scores of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88.77	10.11	-2.030	.044
	Female	92.38	7.46		
Age	>20	91.19	7.67	2.515	.084
	20-21	93.38	9.00		
	22<	94.64	7.78		
Religion	Protestant	89.48	8.55	.912	.436
	Catholic	91.11	6.83		
	Buddhism	91.80	7.88		
	None	92.49	7.83		
High school	Academic	92.18	8.08	.685	.506
	Vocational	89.88	5.82		
	Other	90.50	3.54		
Motivation of nursing	Job/Advance into abroad	92.33	7.54	.268	.898
	Aptitude/Interest	90.79	7.40		
	grade/score	91.42	4.72		
	Advice of parents or others	91.44	9.15		
	others	92.73	10.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별, 연령, 종교,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졸업고교의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591, p=.013)<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 종교, 졸업고교의 계열,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30, p=.044)<Table 5>.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Person 상관 계수로 분석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335, p<.000)<Table 6>.

<Table 6>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fficacy total	.335 (.000)

논 의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62.59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자(2003)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평균 64.53점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각 하위영역별 평균은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이 가장 높았고 '객관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고금자(2003)의 연구에서 '객관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암기 위주의 강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논리적 사고 훈련이 미숙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철학 과목이나 비판적 사고 훈련과 관련된 교양 과목의 비중이 낮아 지적 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윤진(2004)의 연구에서 '지적 공정성'의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임상실습을 한 3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학순(2005)의 연구에서는 '객관성'이 가장 높았고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가 임상실습 중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함양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외 학교마다 실습교육의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의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양승애와 정덕유(2004)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제 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RN-BSN, 4년제, 3년제 간호학생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점덕(2006)의 연구에서는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이 기존의 방법으로 실습지도를 받은 간호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이전의 교육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무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의한 정보를 결정하고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며 환자의 개별적 간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능력 있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므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졸업고교의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문계 계열이 평균 63.00점으로 실업계 계열의 평균 58.7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계열 고등학교에서 논리학과 관련 있는 과목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진(200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고교졸업계열에 따른 사고성향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대상자의 특성별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여주므로 이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교양과목인 철학 및 논리학이나 비판적 사고 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하므로 비판적 사고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경림, 1996; 양승애, 정덕유, 2004).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91.95점으로 중상 정도이었고, 각 하위요인별은 '자기조절 효능감'이 평균 48.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이 평균 24.71점, '과제 난이도 선호'가 평균 18.43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는 석소현, 신동수 및 김귀분(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보통수준이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던 것과, 강소영(2006)의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에서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여자가 평균 92.38로 남자의 88.7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남자 간호사가 늘고는 있으나 간호사가 관례적으로 여성 직업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고 역할이 제한됨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자 간호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민소영, 정승교, 2006).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과제수행을 위한 현명한 행동을 선택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더 오랫동안 과제를 지속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져도 자기조절학습을 하여 학업성취에 큰 자신감을 보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한다. 탁수연, 박영신 및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게 나타났으며, 김정숙, 서리나 및 탁정미(2006)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학업성취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도 관련이 높으므로 교육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Pe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조학순(2005)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Suliman과 Halabi(2007)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태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엔진으로 개인은 비판적 사고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Facione, Facione, & Sanchez, 1996). 비판적 사고는 습관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정보에 밝으며, 논거가 믿을 만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판단을 함에 있어 신중하며 기꺼이 재고하며, 복잡한 문제에 순서를 두며, 정보를 구함에 있어서 부지런하며,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탐구적 과정 등을 지향한다. 간호사는 실무현장에서 자주 복잡한 상황에 관여하게 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바람직한 전문직 특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 및 함양을 촉진하는 교과과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효능기대를 증가시키는 자원을 통하여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적용한 교과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D시와 M시 소재 2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7년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환(1999)이 개발한 총 20문항의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총 24문항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PC 12.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62.5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평균은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21.33점, 지적 정직 19.89점, 신중성 12.13점, 객관성 9.24점으로 나타났다.
-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88.91점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평균은 자기조절 효능감이 평균 45.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이 평균 24.71점, 과제 난이도 선호가 평균 18.4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졸업고교의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591, p=.0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30, p=.044$).
-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Pe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정 상관관계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335, p<.000$).

이상의 연구결과로 1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중정도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과정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이 요구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06).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및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고금자 (2003).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릉.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2006).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9(4), 5-14.
- 민소영, 정승교 (2006).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5(3), 299-307.
- 박선환 (1999).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 (200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5(4), 475-481.
-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43-52.
- 신경림, 하주영, 김건희 (200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 기술에 관한 종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5(2), 382-389.
- 신성례 (2006). 자기효능이론과 실무적용전략. *간호학탐구*, 15(1), 88-105.
- 양승애, 정덕유(2004). 간호대학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6(1), p156-165.
- 윤진 (2004).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 개발: 간호학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점덕 (2006).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조학순 (200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2), 222-231.
- 최진 (2003).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6).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6(1), 143-154.
- 한금선 (200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증상과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5(3), 585-592.
-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6-212.
- Bandura, 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rahler, C. J., Quitadamo, I. J., & Johnson, E. C. (2002). Student critical thinking is enhanced by developing exercise prescriptions using online learning modules. *Adv Physiol Educ*, 26(1-4), 210-221.
- Facione, N. C., Facione, P. A., & Sanchez, C. A.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 Nurs Educ*, 33(8), 345-350.
- McPeck, J. E. (1981).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Profetto-McGrath, J. (2003). The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Adv Nurs*, 43(6), 569-577.
- Shin, K., Jung, D. Y., Shin, S., & Kim, M. S. (200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in associate, baccalaureate, and RN-to-BSN programs. *J Nurs Educ*, 45(6), 233-237.
- Suliman, W. A., & Halabi, J. (2007).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 Today*, 27(2), 162-168.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Kim, Kyung Hae¹⁾ · Kim, Gyung Duck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imcheon Science College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186 nursing students in D and M cities. **Result:** The average scores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2.59 and self efficacy 88.91.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 school system. The self-efficacy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der.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vel and self-efficacy level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r=.335$, $p<.000$). **Conclusion:** A strategy for development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is needed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Thinking, Self efficac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yung Hae

Department of Nursing, Kimcheon Science College

480 Samrakdong, Kimcheon 740-703, Korea

Tel: 82-54-420-9214 Fax: 82-54-420-9279 E-mail: kkh7791@hanmail.net